

영암 소아청소년과 1주년... ‘지역 아동 주치의’ 우뚝

20년만에 전문의 진료 부활

저렴한 비용·만족도 94.9점

3살 아이 진주중 조기 발견도

개원 1주년을 맞은 영암군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가 ‘지역 아이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2004년 마지막 소아과가 문을 닫은 후 영암의 아이들은 아파도 지역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부모들은 목포나 광주 등 왕복 2시간이 넘는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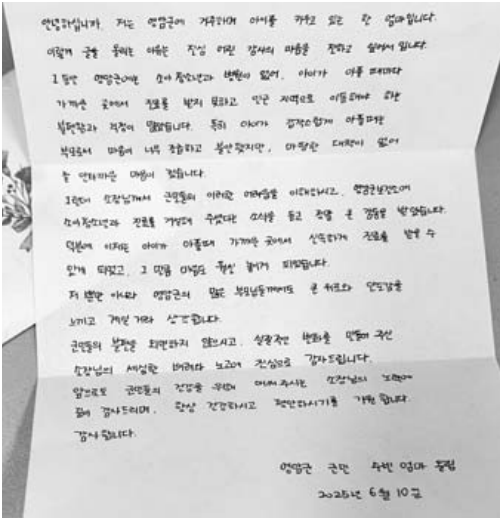
민선 8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영

암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19일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를 개설했다. 20년 만에 전문의 진료가 부활한 것이다.

현재 영암의 소아청소년들은 화·목요일 영암군보건소, 월·수·금요일 삼호보건지소에서 단 1천100원의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 기준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 누적 진료 환자는 2천268명에 달한다. 영암군 소아청소년 인구가 6천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이 지역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은 셈이다.

영암군보건소에서는 총 1천239명이 진료받았으며 ▲일반 상담(62.5%) ▲예방접종(31.9%) ▲영유아검진·호흡기치료(5.7%) 순으로 나타났다.



영암군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학부모의 손편지. <영암군 제공>

강진군 신재생에너지 지원 전남 유일 A등급

체계적 지원...전국 지자체 상위 10%

457가구 연간 2억 에너지 절감 혜택

강진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개평가’에서 전남 중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했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국 173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군은 2025년 사업계획(안)에 따라 태양광 361곳, 태양열 70곳, 지열 23곳을 설치하고, 총 457가구가 직접 혜택을 받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강진군 가정에 설치된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강진군 제공>

연간 약 1,31GWh의 전력 절감, 연간 2억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 연간 6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도,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강

진군은 지역 맞춤형 에너지 복지 확대와 체계적 인사관리 전략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민 생활 현장에서 즉시 제감 가능한 사업 모델을 제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사업 재원은 총 42억원으로, 국·도비 18억원, 지방비 18억원, 자부담 6억원으로 구성됐다.

2025년 국회 예산 확정 시 국비 지원 비율이 최종 결정되며, 국비 지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억원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A등급 결과는 강진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설치·운영·사후관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에너지 부담을 낮추고 복지 제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목포 부흥동 동근공원에서 ‘2025 목포 청소년 광복 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제공>

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 광복 80주년 문화제 성료

청소년·청년·시민 500여명 참여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목포 부흥동 동근공원에서 ‘2025 목포 청소년 광복 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 전남 서부보훈지청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되찾은 조국의 광명: 리멤버 1945’를 슬로건으로 청소년과 청년 등 500여명이 참여해 광복의 숭고한 의

미를 배우고 지역사회와 자유·희망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청소년·청년 자원봉사단 애국자’s의 광복 파로먼스 ▲광복 그림 그리기·글짓기 한마당 ▲청소년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 ▲광복 꿈 무대 한마당 ▲역사·광복 체험 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기획·참여한 무대와 체험 활동은 광복 세대의 기억을 오늘의

감성으로 되살리며 세대 간 역사적 교류의 장이 됐다.

광복 80년은 단순한 연대가 아닌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피와 눈물이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로 이어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민재 센터장은 “광복 80주년을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자 미래세대가 열여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청년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 송호해수욕장 1만8천여명 다녀갔다

전년비 32.2% ↑ ...수상체험 등 인기

해남 송호해수욕장(사진) 방문객이 1만8천여명을 기록, 전년 대비 32.2% 증가했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간 1만7천883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천537명 대비 4천356명(32.2%) 늘어난 수치다.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 증가 요인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공연보다는 소규모의 버스킹 공연을 이어가고 모래조각 전시, 어린이놀이터(워터 슬

라이드, 에어폴장), 수상레저 체험(비나나보트, 패들보드, 플라이피쉬보트, 래프팅 보트 등), 지역특산물물을 활용한 해변별 등을 운영했다.

이 밖에 패들보드 오레 버티기 및 경주 대회, 래프팅보트 단체 경기, OX퀴즈 등 현장 이벤트를 통해 수상레저 체험권과 지역특산물인 전복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피서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해변 물놀이터 운영과 보헤미안 분위기를 풍기는 감성 포토존도 큰 인기를 얻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청년층,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개장 전후 안전관리 및 청소년력 배치, 안전·야간부



표,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확충,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이용객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져 최고의 여름 해수욕장을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다채롭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무안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

채용 비리·운영 투명성 전반 점검

무안군이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집행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투명한 정황이 있다는 내부 제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보조금 집행 내역과 교직원 인건비 및 채용 절차, 운영비 사용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비와 국고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 군부하지 않는 인력을 하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단기 아르바이트

교사 고용에 사용한 정황도 제기됐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수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다.

무안군은 해당 제보를 토대로 법인 어린이집·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과 제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광군,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수입률 1위

영광군이 지난해 금고 예금관리 성과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이자수입률 4.7%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금고은행의 금리를 정부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간담회 참석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발언한 최고 이자수입률 4.7%인 지자체가 영광군으로 밝혀졌다.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수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이자수입률은 1.62%인 반면, 영광군은 56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둬 비율이 4.7%로 분석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높은 이자수입률의 배경에 대해 “2022년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자 기존 저금리 정기예금 1천억원 규모를 중도해지하고 높은 현행 이율로 재예치 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예금관리와 유류자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2022년 대비 이자수입이 40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자수입률은 실제 평균잔액이 아닌 회계연도말 기준 잔액으로 평균잔액을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광=김동규 기자



‘나주들에찬한우 사골곰탕’ 뉴질랜드 첫 수출길

500여포...농가 판로 개척 기대

나주시 자체 한우 프리미엄 브랜드 ‘나주들에찬한우’ 사골곰탕이 뉴질랜드에 첫 수출됐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나주축협에서 ‘나주들에찬한우 사골곰탕’ 해외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출 규모는 약 500포다. <사진> 이번 수출은 나주 한우 농가의 숙원인 자체 브랜드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나주 한우는 건강하고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가 없어 제 값을 받기 어려웠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에 나주시와 나주축협은 지난해 7월부터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운영을 추진해 같은 해 8월 ‘나주들에찬한우’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며 본격적인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나살림 나주축협 조합장은 “수출을 통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이바지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전달하게 됐다”며 “뉴질랜드 수출을 발판 삼아 ‘나주들에찬한우’ 브랜드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나주들에찬한우’는 농가의 정직한 생산과 정성이 담긴 고품격 브랜드”라며 “뉴질랜드 수출을 시작으로 나주 한우의 글로벌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